

※ Team No : 2019-016												선교위원회 확인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결재방음)								
1. 신청부서 :															(팀명 : 베트남2팀)					
2. 선교국가 : 베트남 2팀															3. 사역지 : 안지방찌튼			4. 공 항 : 호찌민(SGN)		
5. 사 역 기 간 : 2019년 08월 01일 (목) ~ 2019년 08월 09일 (금) - 8박 9일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지역	CMTC 1차2차	교적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시무 권사	김석영 KIM SEOK-YONG	6		O O	81-61					
2	총무	시무 안수집사	이경환 LeeKyoungHwan	9		O O	98-1172					
3	서기	시무 권사	이수연 LeeSuYeun	6		O O	94-762					
4	회계	시무 권사	김지선 KimGiSUN	6		X X	88-774					
5	의료	시무 권사	곽경숙 GwakGyeongWoon	6		X X	89-681					
6	부서기	시무 서리집사	김은숙B KimEunSook	6		O O	2009-019					
7	부총무	시무 안수집사	곽흥운 KwakHeungWoon	6		O O	89-215					
8	부회계	시무 서리집사	이현숙 LeeHyunSook	6		X X	95-1264					
9	찬양	시무 권사	우미희 WooMiHee	8		X X	2010-018					

※ CMTC 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2019. 3. 양식변경]

	담당	분과장
	5/12 황수만	5/12 정재명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9.8.1. ~ 2019.8.9.)

팀번호 : 베트남 2팀 (팀장 : 김석영권사)

성명 : 이 경 환

우리는 팀 훈련과 선교언어 공부를 통해 중급 수준의 베트남 언어로 무장하였습니다. 베트남 전도와 책받침은 물론, '글 없는 그림책'과 복음 팔찌 이용한 선교도 베트남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익혔습니다. 울동, 중창, 악기연주, 마임, 색종이 접기, 풍선 아트 등 다양한 선교 도구를 챙겼습니다.

짙은 청색 단체티와 흰 장갑을 착용하고 '마임'공연을 하였습니다. 높은 시선 집중과 함께 큰 '아멘!'소리의 화답이 있었습니다. 마임공연은 복음 전파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고령(?)의 나이를 잊은 채 중고등부 시절의 소녀, 소년과 같은 심정으로 마임 공연에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방문하였던 고아원의 원장님이 우리를 함박 웃음으로 반겨주었습니다. 고아원 사정으로 작년보다는 어린이들이 적었지만 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울동찬양, 전도용 책받침, 글 없는 그림책, 복음 팔찌, 풍선아트 등 준비한 선교 사역을 마음껏 어린이들에게 펼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트남 교회에서의 주일예배도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복음사역,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베트남 성도들과 한 형제자매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재미교포였던 한 분이 자신이 그동안 번 돈으로 마련한 땅에 신학교 및 교회 설립을 계획하고 착공예배를 드리는 그 곳에 우리 팀이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학교를 온전히 잘 이루시도록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팀의 동참으로 예배는 풍성해 졌습니다. 현지교회 방문 일정 차질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착공예배 후 현지인교회에서도 초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일정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기하고 오묘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감격하였습니다.

우리 팀 선교의 메인장소는 캄보디아 접경 베트남 시골 마을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교회 외선부 출신 귀국자 형제가 우리들의 후원에 힘입어 가정교회를 짓고, 자신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귀국자 형제와 그 곳 가정교회의 성도들, 초대받아온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준비한 선교사역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보지 못하였던 많은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우리팀원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둘러서서 뜨겁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가 빵과 과일과 교회에서 준비한 해물국을 함께 나누면서 웃음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공산국가 베트남은 외국인의 선교가 금지된 곳입니다. 다만, 현지인 목사님이 베트남인에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팀은 현지인 목사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준비한 선교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던 1970년대의 신앙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토속불교의 세력이 크고, 공산당 공안들의 감시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주 성령의 역사가 점점 왕성해 가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저를 보내시고 주의 사역에 쓰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9 .08. 01. ~ 2019 .08 .09.)

팀 번호 : 베트남 2 팀 (팀장: 김석영 권사) 성명 : 김 석 영
< 오직 은혜 ! >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외선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귀국한 베령제를 10년간 신방하며 "3시간 당어도 교회가 없이 예배를 못드린다"를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너의 가족에게가도 예배 드리면 그곳이 교회다"라고 권언하며 성경책과 찬송,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에 순종한 베령제의 믿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허마다 신교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였다. 주님의 사랑에 현직목사님(다이)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양육받게 하시고 신학교에 다니게 하셔서 본교회 현지 사역자로도 세워주셨다. 한 가정으로 시작된 가정교회가 이제 주일이면 15~20여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이번 신교 부흥집회에는 60여명이 오셨고 현직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다 협력사역하는 가운데 30명이 주님을 영접하였다. 풍성한 은혜에 주님이 있다. 베 사역자의 순종과 성심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생각되며 감사했고 저동지역은 캄보디아 국경근처로 호치민시에서 8시간 떨어진 가난하고 무상에 피는 풍성한 메콩지역의 주민들이 사는 곳이라서 특히 우리 주님이 병든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으니 매우 감사하고 더욱 귀한 지체들로 여겨졌다. 베사역자가 더욱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전도하기를 기도하였다. 또한 다이 목사님의 초야수원교회 등 현지교회와의 협력사역을 작년보다 열거주셔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은 준비해가서 문제로 받았고 올해는 또한 니엠티목사님 교회의 예정된 사제들 취사로 당황케하며 기도할 때 빈곤지역의 신학에 확고예배에 초대되어 다시 한번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성리, 순길을 느꼈고 빈곤지역의 헌신된 노선생님의 충성된 믿음과 모든 재산을 신학에 건립에 쏟는 헌신을 보며 생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복도기를 보았고 생으로 연결되지 못한 미성숙한 나의 부족한 믿음과 모습을 보여 회개하게 하였다.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과 영을 주셔서 베트남 하남성 나나 확광에 심오하기까지도 감동하도록 계속적으로 귀를 사용케 주셔서 기도하며 올해도 지경을 넓혀 주시며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기도 드렸다.

선 교 소 감 문

(사역기간 : 2019.08.01. ~ 2019.08.09.)

팀 번호 : 베트남 2 팀(팀장 : 김석영 권사) 성 명 : 곽 흥 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잠16:9)”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외국인의 선교는 통제가 심해서 한국식으로 전도하면 벌금과 추방 당하기에 관계맺기를 통한 심방사역이 효과적이어서 바울이 삼차 전도여행하는 심정으로 올해 세 번째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 선교팀은 김석영권사님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준비하며 계획한대로 호치민에서 멀리 있는 선교센터와 럽양고아원 방문, 까이베지역 가정교회(띠엔장 다이목사님), 롱쉬엔지역 가정교회(니엠목사님), 안지앙 찌툰지역 은혜교회(베전도사님) 등을 방문하여 사역하는 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다이목사님을 비롯한 신학생인 웅전도사, 늑전도사, 빌립전도사와 동행하면서 베트남 복음화를 애쓰는 그들과 함께 더욱 힘차게 선교사역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베트남인 남선생이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베트남에 귀국하여 에덴동산(?) 같은 농장을 사고 신학교를 짓기 위해 착공식을 하는 날 우리 선교팀이 방문하여 감격적인 착공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선교지경을 넓히시는 걸 체험할 수 있었다. 고아원 원장님의 버려진 영아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수 있었고, 주일예배를 띠엔장 다이목사님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간증, 기도받기를 원하는 성도가족을 불러내어 부족한 우리들에게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신실한 성찬식에 참여하여 은혜가 충만하였다.

6교구에서 후원하고 있는 안지앙 찌툰은혜교회는 도심에서 3시간이상 차로 들어가는 베트남의 불모지라 할수 있는 깡촌지역으로 베형제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오토바이로 와서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베트남판 부흥집회를 할 수 있었다. 다이목사님의 설교후 결신의 기도와 병자를 불러내어 치유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며, 특히 앓은뱅이 아가씨를 향한 합심기도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외치는 소리처럼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니 곧 나사렛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드릴수 있었다.

우리 선교팀은 준비한대로 연극 마임과 찬양등으로 김석영권사님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행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은혜가 넘쳐나서 주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9 .08. 01. ~ 2019 .08 .09.)

팀 번호 : 베트남 2 팀 (팀장: 김석영 권사) 성명 : 이수연 권사

사역준비를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할 즈음 집안에 사정이 생겨 주재로 마음을 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고 사역이 집중하는 일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었다. 매일 선교 때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어도 결국 주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단단하게 세워셨었다. 이번에도 걱정거리를 주님은 귀한 뜻이 있겠다고 생각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사역 4일째까지는 계획대로 준비한 사역이 순조롭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5일째 3일날이었다. 방문하려 했던 교회의 니엠 목사님이 방문을 거절하는 연락을 해왔다. 우리는 당황했고 해산의 인조하심을 구했다. 동행하신 타이 목사님의 권유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우리가 초대받은 곳은 재미교포로 미국에 계시던 '남'이라는 베트남성로가 뜻을 가지고 교회를 귀국하며 신학교를 세우는데 고혈이 착공하는 날이었다. 우리가 와서 함께 기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초대하셔서 신학교와 기록사를 작은 광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와 찬양하며 귀한 교제와 시간을 가졌다. 그후 니엠목사님이 저녁에 방문해 주신 뜻을 전해써서 우리는 다시 니엠목사님 교회도 방문하게 되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결을 이루하시는 이는 때로 아이다는 믿음처럼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선교하심을 묵묵히 겸허히 남은 사역으로 주님께 맡기며 물러드렸다. 처장 목적지 안자양 자타옌교회로 향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6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린아이들로 25명쯤 떨어져 준비한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가뵈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차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위로의 교제를 나누었다. 또한 동행한 베트남 현지 목사님 라 전로사님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형제애를 느끼며 더욱 풍성한 사역을 마칠수 있어서 감사했다. 물론 선교전의 집안의 걱정거리도 처장의 방법으로 해결해주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으소서! 아멘!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9 .08. 01. ~ 2019 .08 .09.)

팀 번호 : 베트남 2 팀 (팀장: 김석영 권사) 성명 : 이현묵 집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것이 아무소리 아니들려도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만을 믿고 가라 의심거리고
가라 주님의 주신 말씀과 찬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는 물리 두번재 베트남을 방문했다
올해는 특별히 현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수있었다
따이 목사님 교회로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수있는 은혜의
감사한다 우리 총회교회의 예배 순서와는 다른
예배였지만 현지교회의 성찬식을 함께 할수있는 은혜를주셨다
특별히 저로 인해 교회를 방문하여 찬양과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과 함께 복음팔지를 만들어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분들께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기도했고 주님의 사랑이 베풀어졌다
언약장 저희들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라 평강하신
베트남의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9 .08. 01. ~ 2019 .08 .09.)

팀 번호 : 베트남 2 팀 (팀장: 김석영 권사) 성명 : 김 은 숙

< 견고한 선교 베이스를 구축 !! >

8박 9일 간의 베트남 선교를 마치고 그 동안의 일정을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준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선교는 2야말로 베트남 사역을 위한 '선교 베이스 구축'이 아니었을까 확신이 든다.

급작스런 경제 성장으로 더욱 혼탁해지는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심어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새생명 교회가 바로 첫번째이다. 조인숙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운영되며 이곳을 통해 믿음의 청소년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띠엔장의 띠이 목사님 교회이다. 지통의 베 형제, 웅 전도사, 늑 전도사, 등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띠이 목사님께 양육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셋째로 안지앙 지통의 은혜교회이다.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라 불릴 정도로 무당도 많고 주변 환경도 열악한 지역이다. 병들고, 못 먹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이들이 많은 곳이다. 이곳에 '베' 형제를 세워서 은혜교회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넷째로 이번 선교는 국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베트남 현지 목회자, 전도사님들의 협동 사역이었다. 이로써 언어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는 여건로 마련되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선교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베' 형제의 순종으로 안지암 지통의
은혜교회가 세워지고 따이 목사님, 조인숙 선교사님,
윙 선교사님을 알게 하시고 관계 맺음으로 베트남
사역의 지평을 점점 확장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9 .08. 01. ~ 2019 .08 .09.)

팀 번호 : 베트남 2 팀 (팀장: 김석영 권사) 성명 : 박 경숙 권사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몰래도 단기 선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라를 방문했는데 세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기존 아이들이 나빠진 몇명되지 않았다
나간 아이들도 다쳐 돌아와서 믿음 생활 잘 하기로 기도합니다. 렐양고아원 원장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 회신하는 사랑에 감사하지 못할일이
없다는것을 알게 하셨다 찬양과 복음팔기, 무언극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섬세하게 가르쳤다 타이목사님 교회 방문하여 우리가 준비해간
찬양과 무언극으로 그들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다 그분들이 무언극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하나님께 감사한것은 남선생님 가정을 방문하게
하셨다 남선생님은 평을 삼전평 가지고 미션분이셨다 그당에 신학교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다 저희 팀원들에게 신학교 교회 설립 책상성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팀원들이 책상성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다 베트남에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로 건축한 지를 은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할때 전제라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다 이튿날도 처음으로 외신분이 6명이였다 이분들도 영정기도 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배사역자를 섬세하게 쓰시구나 하고 감사했다
저동은혜교회가 생명책있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했다 은혜 교회들이 마음의분이
영광이나 하는 모습이 보였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많은 거두는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다
은전 기사님 한도 영정기도까지하고 주님을 영정하고 믿겠다고 눈물로 약속했다
우리의 연이 부족함을 아신 미션 선교는 현지인 타이목사님, 웅전도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어서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9 .08. 01. ~ 2019 .08 .09.)

팀 번호 : 베트남 2 팀 (팀장: 김석영 권사) 성명 : 유 미희

베트남 선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곳은 공산화가 되어 선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나 우리가 같은 남쪽이라 감시가 심한 곳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십자가가 보였고 교회도 있었고 자유롭게 찬양소리가 동네 밖으로 들려도 제제를 당하지는 않은 듯 했으며 정무로 부터는 은근한 제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동안 뿌려놓았던 기도와 헌신으로 베트남 남쪽 호치민 몇몇 사람들의 형제자들과 외선무 김석영 처사님이 새운 지든은혜교회 베품사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신기하기로 했고 앞으로 어떻게 쓰임이 기대되기로 했다.

베전로사님은 농사를 짓는 농부로 여기고 연약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베전로사님을 보며 베트남과 그지역에 귀히 쓰임 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 했고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가 지든은혜교회에 갔을 때 그 장을 가득 채운 어린이들과 사역과 어른들의 병치레를 기쁘기로. 난소알환과. 안전병이. 호환이 곧 생활할 터니. 한아메리 중등병과 젊은이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셨든 모든자들이 개끗이 나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은혜교회수가늘의 나쁜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따미 목사님, 베트남 지역에 연약한 교회를

들보시며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로 베트남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또한 따미 목사님을 통해 몇 명의 전도사들과 외선무에 있는 행정로사님과 함께 협력하며 베트남 선교는 베트남에 있는 신학교의 목회자와 신학생을 들보며 그와 협력할 기초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느끼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며 기억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선교소감문

(사역기간 : 2019 .08. 01. ~ 2019 .08 .09.)

팀 번호 : 베트남 2 팀 (팀장: 김석영 권사) 성명 : 김 지선 권사

이번 선교는 계획은 우리가 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획은 나쁜 교회로 가기로 정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간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러던중에 신학대학 각공식에 참여하여 여배를 드려야 한다는
소식에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며 참여하였다

예전에 3,400여명에 땅을 구입하여 기도하던중에 때가되어
기공식을 준비하였다는 말에 뜻하지 않은 우리 선교팀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체감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